

# LaTeX를 다시 시작하며

전 철 (신학동네)

2008년 3월 10일

## 차 례

1 들어가며	1
2 사용하면서	2
3 LaTeX의 활용에 대하여	3
3.1 참고문헌 작성	3
3.2 문서들의 통합작업	3
4 남는 과제	4

## 1 들어가며

$\TeX$ 을 처음 발견한 지는 약 4년 전이었던 듯 하다.  $\TeX$ 은 한글이나 MS 워드와는 사뭇 다른, 편집 조판 프로그램이다. 이  $\TeX$ 은 논문작성과 편집에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며, 한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KTUG 한글  $\TeX$  사용자 그룹 <http://ktug.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 (MiKTeX-2.3)을 처음 발견 한 후, 컴퓨터에 제대로 구동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지 모른다. 한글  $\TeX$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여  $\LaTeX$ 을 구동시키고, 이  $\TeX$ 으로 학위논문 작업도 MS-Word와 일부 병행 진행을 하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논문은 MS-Word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당시에 신학동네의 몇몇 논문들과 에세이는 LaTeX로 작성을 하였다.<sup>1)</sup>

이렇게 여러 이유로 몇 년동안  $\TeX$ 에 손을 더 이상 대지 못하고 MS-Word만 사용하던 중, 며칠전 베르군더 교수 (Prof. Michael Bergunder)가 주관하는 한 콜로키움에서 텍으로 논문작업을 하는 동료들을 알게 되었다.  $\TeX$ 에 대한 옛날의 소중한 기억도 떠오르곤 해서 다시 KTUG 한글  $\TeX$  사용자 그룹 <http://ktug.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

1) 예: 도암 Doam 창립 120주년 심포지움 참석기 (2004년 9월 27일)

$\text{\TeX}$ 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변화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던 중, 매우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졌음에 새삼 놀랐다.<sup>2)</sup>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다시 이번에 나온 KTUG Collection 2007을 컴퓨터에 설치 시도를 하였으며,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text{\TeX}$ 의 설치 과정은 이전에 비해 훨씬 간편 해졌다. 예전에 내가 주로 사용했던 한글 폰트(은글꼴, 아시아, 완성형)을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은 아직 익히지 못하였기에, 지금은 그저 기본적인 폰트만 사용하고 있다.

## 2 사용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독일어의 움라우트가 번거롭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이 된다는 점이다. 이 근거는, 아마도 이번 콜렉션이 UTF-8 소스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구동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전의 WinEdt 라는 에디터 대신에 EmEditor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훨씬 편해 보인다.

다른 수학이나 과학의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때에  $\text{\TeX}$ 으로 작성한 논문은 어려움 없이 투고가 되긴 하겠지만, 신학이나 인문학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다. 만약  $\text{\TeX}$ 으로 논문을 작성하였어도 이 포맷을 투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text{\TeX}$ 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변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선택의 문제가 등장한다. 즉 논문제출에 있어서 그 제한을 감수하고라도  $\text{\TeX}$ 을 통하여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Ms-Word 아니면 한글HWP를 통하여 논문작성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거의 쓰지 않았던 HWP 포맷이 학술논문 제출의 기본으로 자리잡혀진 듯 하다.

학문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학문적인 연구를 문서를 통하여 그 사회와 공유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문서는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담고 있을 수록, 그리고 공유의 과정이 효율적일 수록 그 사회에 유익할 것이다. 사실 문서 출판과 사회적 공유의 차원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헤아려 볼 때 거기에는 많은 성과와 진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인쇄술과 출판의 발달,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진화로 인하여 사회 내외부의 정보소통은 혁신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면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학문적인 연구의 문서화와 사회적 공유에는 여러 번거로운 단계와 형식이 놓여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문적인 연구의 사회적 공유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는 여러 대안적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 대안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를 나는 개인적으로  $\text{\TeX}$

---

2)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적인 LaTeX 구현과 공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분들의 땀 덕분에 초보자들은 그 귀한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분들(특히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도은이아빠 님, 이호재 님, 그리고 김도현 님 등등)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

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text{\TeX}$ 의 기본적인 장점은 학문적인 연구에 있어 논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간편성과 엄격성, 그리고 문서의 최종적인 편집까지 아주 수려하고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는 편집의 주도성과 독자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text{\TeX}$ 에서는 논문 작성과 논문의 편집이 동시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결되어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최종편집 파일을 물리적으로 출판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큰 숙제이긴 한데, 최소한 논문작성과 편집을  $\text{\TeX}$  안에서 모두 완결할 수 있다는 것만 헤아려도 큰 장점과 효율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 3 LaTeX의 활용에 대하여

논문작성에 있어서  $\text{\TeX}$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각주, 인용문, 참고문헌, 목차 등등에 관한 소스들을 머리에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몇 년 전의 기억만 가지고는 도저히 직접 문서작성에 관한 소스를 구동시킬 수 없어서 다시 책을 보고 기본적인 언어와 문법들을 익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text{\TeX}$ 에 가장 기대를 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참고문헌을 db 화 하여 논문작성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기 다양한 텍스트 소스들을 수월하게 통합하여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 3.1 참고문헌 작업

우선 문헌과 논문의 기본적인 정보를 일관되게 담을 수 있는 소위 Bibliographie 탱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저서와 논문의 정보, 그리고 그 문헌의 기본적인 테제, 인용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물론 검색기능, 그리고 내가 소유한 저서와 문헌이라면 그 문헌에 대한 자동적인 번호 기입 그리고 문헌 검색까지 가능한 것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탱크에서 논문의 테제 구성 및 참고문헌의 효율적 작성과 연계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text{\TeX}$ 에 연관된 Bibliographie 프로그램이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다 포괄하는 프로그램인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text{\TeX}$ 에 연계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비블리오그래피 탱크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구에 훨씬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3.2 문서들의 통합작업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된 문서들을 주제에 따라 통합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경우  $\text{\TeX}$ 은 큰 의미를 발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MS-Word의 스타일 기능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활용하지 못한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기능으로 보여진다. 눈에 드러난 텍스트들을 특정한 스타일 기능을 맞추어서 어거지로 단일하게 편집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몇 개의 MS-Word의 문서를 한 페이지에 담아낼 경우 각기 작동되

는 수많은 스타일 정보들을 일일이 통합시키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타일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를 엄격하게 작성하기 보다는, 그냥 수동적인 편집을 통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text{\TeX}$ 의 소스는 기본적으로 text 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들의 통합작업에 매우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text{\TeX}$  소스의 문법적 오류 이외에 text 자체의 분량으로 인한 편집정보의 유실이나 구동의 오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들의 방대한 통합과 편집 작업에는 매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 4 남는 과제

우선은 내가 원하는 다양한 폰트를 편집의 과정에 구동시키기 위한 방법, 그리고 편집을 위한 기본적인  $\text{\TeX}$ 의 문법을 암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익히고 숙지해야 할 과제이다.  $\text{\TeX}$ 은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으로 초기 투자의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지속적으로  $\text{\TeX}$ 의 문법과 기술들을 익히고, 실습을 하게 되면 논문작성 및 편집에 있어서 어떠한 워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사실 KTUG 한글  $\text{\TeX}$  사용자 그룹 여러분들의 공동의 성과와 진화가 매우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저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사이 많이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진도가 나가버리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과 한도 내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text{\TeX}$ 을 배우고 적용하며,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의 논의와 공동작업의 성과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익히는 작업 외에는  $\text{\TeX}$ 에 대한 정복은 대단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몇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text{\TeX}$ 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워드보다 더욱 더 가까이  $\text{\TeX}$ 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며,  $\text{\TeX}$ 을 통하여 앞으로의 개인적 연구, 문서작성, 그리고 연구의 사회적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KTUG 한글  $\text{\TeX}$  사용자 그룹에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